

‘도민행복, 맞춤복지’ 제주사회복지인 화합 무대



▲제1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10일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한마음축제 참여단체 공연 모습.

오는 10일 제14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개최 2013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도 함께 열려

제주사회복지인의 화합과 협력의 장인 ‘제1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3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오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단체 종사

자 및 생활(이용)인, 자원봉사자, 공무원,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린다. 1부 순서에서는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에 이어 기념사,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윤리선언문 낭독을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옹호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 구현을 추구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2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생활(이용)인들이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뽐내는 사회

복지인 한마음 축제가 열린다.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혜재활원 등 10개 팀이 나서 악기연주, 댄스, 합창, 우수 등 다양한 내용으로 경연을 펼친다. 대상 1팀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각 1팀에게는 상금 70만원, 50만원, 3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제정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설문조사 실시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5)
- 사회복지소식 4·5면
제4회 행복 나눔의 날 개최
아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유네스코세계유산 조례제정 및 확산을 위한 토론회
- 광고 8면
2013 제주 나눔 대축제

기초생활수급자 정기점검 실시

전년 말 대비 175명 감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1만161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지 등

에 대해 확인한다.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1만1610가구 2만1811명(2013년 6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2만1986명보다 175명이 줄어 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인 행복e음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사전 점검결과

지난 8월 기준 자격·급여변동 예상자는 총 6493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급여증가가 1247명, 급여감소 2808명, 자격변동 1299명, 부양비 초과 438명, 부양 능력 있음이 70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사전점검 결과에서 파악된 대상자들

에게 확인조사의 취지 및 소명방법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탈락예상자들에게는 소명접수 후 생활보장심의회에 상정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및 민간 자원 등을 안내해 보호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9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10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blueseas-hm@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59-1377(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시건강가족지원센터	(주)중부발전과 함께하는 제2회 'Power up! 가족에너지 올리기' 가족캠프	제주화력발전소 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캠핑 및 체험	06-07일(1박 2일) / 탐라공자집 / 참가비 무료	725-8015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2회 가족캠프	일반가족과 함께하는 야외 캠핑	14-15일(1박 2일) / 낙천리 아홉굿마을 / 참가비 3만원	725-8005
동제주노인복지센터	노인들의 역량 강화와 치매예방을 위한 '실버원예교실'	원예교실을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학구열 성취와 자존감 향상 및 심리, 정서적 안정을 통한 치매예방	9월~11월 매주 금요일 10~12시 / 선착순 20명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1층 / 참가비 무료	782-8353~4
은성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이주여성 5차 요리교실	한식요리교실	5차 11일(수), 6차 25일(수) / 은성종합사회복지관 / 참가비무료	726-8388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1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공모전	자살예방을 위한 포스터(그림 및 사진),ucc의 공모전, 제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시상내역에 따라 상금 지급	접수기간 : 11일(수) 18시 / 우편, 이메일 접수	728-4075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서귀포시지부	제9회 서귀포시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기념식 및 체육대회	14일(토) 10시~17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강정동)	733-6810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제주시지부	수화프리즘 - 4분기 수화교실 교육일정	수화 초급 · 중급 · 고급반 개설	10월1~12월12일 3개월(총20회)19시~20시 / 주2회(화,목) / 제주시지부 교육장(탐라장애인복지관 3층) / 수강료3만원-5만원(책값별도)	757-2120
애덕의 집	그림홈 · 체험홈 실무담당자 2차 정기교육	인권교육과 사회복지	6일(금) 13시~16시/제주애덕의집 지하다목적실/교육비무료	724-810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의 날 특강	사회복지시설 경영과 리더십, 논리모델을 이용한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5일 14시~17시, 협의회 2층 삼다수홀	702-3784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설문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이른바 바우처 서비스란 지역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제주도 내에서 시행하

고 있는 바우처 서비스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청소년맞춤성장지원서비스 ▲건강나눔안마서비스 ▲어르신여가활동서비스 ▲아동청소년음악멘토링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인터넷과물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출산및영유아용품렌탈서비스 ▲영아와

부모를위한가족지원예술치료서비스 등 13개 사업이며 7200여 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지난달 5~23일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제공기관에 운영현황 및 제공인력 현황, 신규 사업 개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물었으며, 수요자에게는 서비스 이용현황과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특수보육 어린이집 확대 추진

특수보육 어린이집 실태

2013. 6. 30 현재

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방과후	휴일	24시
404	25	4	37	248	22	67	1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수보육 어린이집을 올해 말까지 415개소 이상 확대 지정,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변화와 다양한 취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수보육 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시간 연장형 ▲휴일보육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방과 후 ▲

24시 보육 등이 있으며, 맞벌이 가정이나 야간 직장인 가정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보육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월 60만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꿈 공장 ‘사회복지사를 만나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꿈 공장’을 진행했다.

꿈 공장 프로그램은 진로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함으로써 초등학생 때부터 폭넓은 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사 법조인 과학수사경찰관 예술가 큐레이터 방송인 등 총 6회기에 걸쳐 다양한 영역의 종사자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된다.

지난달 7일 열린 첫 번째 순서에서는 제주종합사회복



지관을 견학한 후 숨은 성격 찾기, 성격유형 테스트, 성격과 관련한 직업 알아보기, 명함만들기, 사회복지사와의 만남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김석훈(가명, 도남초등학교 5학년)군은 “사회복지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됐다”며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섬마을 선생님’ 추차서 재능 나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는 제주의료원, 신라면세점, 한울 간병봉사회, 제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용머리 예술단, 러브하우스 반디봉사단 등 재능기부 봉사단 40여 명과 함께 추자도를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25일 추자도 대서리 경로당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의료봉사를 비롯해 이·미용서비스, 민요공연, 상담서비스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진행했다.



꿈 찾아 떠나는 ‘사람 책 도서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지난달 13~14일 청소년기 위탁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람 책 도서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참가한 중·고등학생들이 목표표로 한 직종에 직접 찾아가 체험해보고, 자신의 꿈에 대한 스토리 북을 만드는 활동 등을 하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귀포시 베리어프리 영화상영 ‘큰 호응’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 이하 서귀장북)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영화관-베리어프리’ 사업이 지역 내 호평을 받고 있다.

베리어프리 영화는 자막이나 화면해설이 없으면 영화를 관람하기 어려운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화에 자막과 음성해설을 넣어 누구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한 영화상영 방식이다. 제주영상위원회의 협력으로 진행 중인 이번 사업을 위해 서귀장북은 관내 7개 읍·



면·동 장애인지원협의회와 연계해 남원을 시작으로 중문, 대정 등 3개 지역에서 영화를 상영해 매회 100여 명이 넘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연말까지 3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꿈드림 사업단, 특수교육보조원 사업 실행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꿈드림사업단은 제주시내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현장에 보조원을 파견해 장애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주요활동은 기본생활 및 개인육구 지원 등이며 방학동안 직무교육 및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2013년 1학기에는 9개교 10



명의 보조원을 파견했으며, 2학기에는 2개교를 추가 배치해 총 11개교 12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이 60여 명의 장애학생의 보조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서귀포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사)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서귀포시지부(회장 박춘근)는 오는 14일 서귀포시 강정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제9회 서귀포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서귀포시지역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가족, 비장애인도 함께 참여하며, 1부에는 기념식과 표창·감사패 수여를 진행한다.

2부에서는 고리던지기, 윷놀이 등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이며, 레크레이션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농아인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홍승희 헤어숍, 이·미용 자원봉사

제주시 노형동 홍승희 헤어숍(대표 홍승희)은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창암교육활동센터 이용장애인들에게 이·미용 자원봉사를 진행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해요” 8월 식품기탁자

▲금강축산유통=육류 384kg ▲김지원=김치 40kg ▲뉴월드마트신제주점=비빔면 90개 ▲동원F&B제주=냉장·냉동식품 4035개 ▲빵피아모=빵 43봉 ▲산방미곡=쌀 80kg, 현미 40kg ▲삼다유통=삼다수(2L×6) 300팩 ▲서문식품=두부 453모 ▲이네이네= 멸치7.5kg ▲이어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야채 71.2kg ▲제주보리촌=보리빵 99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 150팩 ▲존샘봉사회=수제참쌀고추장1kg 70개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116봉 ▲안신희씨=치커리 2kg ▲장기자씨=바디로션 2개

사회복지협의회 2013년 7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450,000	45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490,000	490,000
복지사업후원	1,130,000	608,000
푸드마켓후원	2,925,000	720,72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5)

“봉사라 쓰고, 꿈이라 읽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 김도영 팀장 만나다



▲몽생이 기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봉사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김도영 팀장을 만나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봉사란 무엇일까. 단지 내신 성적을 쌓기 위한 수단? 그저 20시간 쌓아서 성적 올리는 것? 우리 청소년들에게 봉사란 그저 ‘스펙’에 불과한 것일까? 하지만 김도영 팀장의 생각은 달랐다. 지난달 몽생이 기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제주청소년들의 봉사관련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 김도영 팀장. 하지만 정작 김팀장은 원래 봉사에 대해서는 아주 조그마한 관심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봉

사의 길에 입문하게 된 걸까. 대학교 시절 봉사 동아리를 통해 처음 봉사를 하게 된 김팀장은 원래 공학도는 반드시 공학도의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했지만 보육원 봉사를 통해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오래 걸리더라도 아이들과 접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지금의 팀장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김팀장님이 생각하는 청소년에게 있어 봉사활동이란 무엇일까?

봉사활동. 쉽게 생각해서 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베푸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즉 이를 통해서 도덕과 윤리를 책을 백 번 읽는 것 보다 행동을 통해서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남을 대하는 예절을 배울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른에게는 봉사활동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봉사학습’이다. 그 이유는 청소년 때 봉사 학

습과 연습을 하면서 봉사학습 과정에 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쉽게도 청소년들이 봉사를 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고 한다. 하지만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들을 통해 봉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중 하나는 요양원을 방문하여 세족 등의 각종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자선 모금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공연 문화 여건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꽃자왈 관련 봉사를 통해 제주를 홍보하는 동아리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오직 학업에만 열중하는 학생들. 아무리 봉사를 해도 삶의 만족을 다 얻을 수 있을까? 물론 봉사를 통해 진로를 깨닫고 그것을 추후 사회생활의 발판으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적일까? 행복을 위해서는 단지 성적만 좋으면 될까? 팀장님께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실의 꿈과 필요

한 꿈이 없는 청소년들. 하지만 본인이 확고한, 자신만의 갖고 있는 꿈, 가슴에 새겨진 꿈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성적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팀장님께서 “꿈을 가지면 생활 자체의 즐거움이 있고, 꿈을 갖고 생활을 즐겁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자기 목표가 뚜렷하면 삶이 즐겁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재미없고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꿈만 있을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를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번 취재를 통해서 봉사의 정신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꿈을 어떻게 간직해야 할지를 깨닫았다. 앞으로 우리는 자신의 꿈을 가지고 봉사와 자신의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법률홍닥터 ①

“성년후견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정 광 영 법무관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이번호부터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상식을 전해드리는 ‘법률홍닥터’ 코너를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가 민법상 정해져 있었으나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본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제도의 활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반면,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바탕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이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의 종류에는, ①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취소권을 가진 성년후견, ②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동의권·취소권

을 갖게 되는 한정후견, ③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갖게 되는 특정후견, ④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후견인의 권한을 인정하는 임의후견이 있다.

후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의료, 재할,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신상보호 등을 주요 사무로 하게 된다.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원은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당사자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 친척, 친구는 물론이고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계 분야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다수의 선임도 가능하다.



후견인을 선임했는데 만일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견인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후견감독인과 법원에서 한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후견인 임무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후견감독인은 법원에 후견인 변경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불편 또는 어려움이 있는 이들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

게 하기 위하여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INFO

법률홍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홍닥터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702-3782

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행복 나눔의 날 개최

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오는 14일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2013 서귀포시 행복 나눔의 날'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행복 나눔을 실천하고 시민 상호간의 복지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나눔 장터 및 모금행사, 홍보 및 체험부스,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길트기로 시작해 아동, 청소년, 노인분야의 축하공연에 이어 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테마관에서는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사업 홍보물 배부 및 서비스 상담, 기관 생산품 전시 및 판매와 장애·노인·다문화 체험 등 복지체험, 혈압 및 당뇨검사 등 건강안전 체험 등을 운영한다.

행복 나눔 장터도 운영한다.

(사)기아대책 행복한 나눔 가게 주관으로 진행되는 행복 나눔 장터에서는 재활용품과 생활용품, 의류, 신발, 가방, 재고 답례품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여름방학 독서캠프 개최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달 9~10일 1박 2일간 2013 여름방학 독서캠프 '행복의 자전거를 타고 소풍가는 내 마음'을 진행했다.

지역아동과 교육문화수강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캠프는 고정국 시인을 비롯해 극단 새벽이 참가해 캠프의 즐거움을 더했으며, 많은 지역주민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소/식/마/당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스트레스 날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도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날려버려,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주 사랑의 열매 지원으로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직무상 직면하게 되는 각종 스트레스의 해소와 대처능력을 향상시킬것으로 기대한다.

또 시설 내 노인 학대 예방 및 어르신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성복지관, 한식 요리교실 개최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식 요리교실을 진행한다.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월 2회 진행되는 한식요리 교실은 요리뿐만 아니라 한글도 배우고, 한국문화도 알도록 구성해 다문화이주여성의 자신감 향상 및 대인관계 개선 등 가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1박2일 나들이 캠프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제주복지관, '하늘소풍 준비하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은 노년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하늘소풍 준비하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죽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보를 제공해 두려움을 해소하며, 유언을 비롯해 상속에 관한 법률, 장례정보, 유언장 작성, 자서전 쓰기, 영정사진 촬영 등 남은 인생을 재인식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보리촌 푸드마켓에 보리빵 정기기탁



제주시 이도2동 제주보리촌(대표 김형빈)은 지난달 16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25만 원 상당의 보리빵을 기탁했다.

제주보리촌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매월 2회 이상 총 19회 577만원 상당의 보리빵 및 썬빵을 기탁하고 있다.

제주장애인부모회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진행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는 지난달 21~22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장애아들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김명수 가족사랑 상담소장이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부부의 의사소통 방법을 비롯해 부부, 자녀의 마음 이해하기 순으로 진행했다.

제주장애인부모회 한봉금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료애를 고취시킴으로써 부부와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안복지재단, 나들이 진행



성안복지재단 조손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차상)는 지난달 16일 조손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지원프로그램 '너와 나 함께하는 즐거운 나들이'를 진행했다.

제주시 연동 수목원 테마파크에서 열린 이번 나들이는 아이스뮤지엄 관람, 5D영상관람, 착시아트체험 등의 문화체험을 진행했으며, 지역사회교육 전문가와 멘토로 참가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아라복지관, 요리교실 개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9일 아라주공아파트 단지 내 여성·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실을 개최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을 쏘다'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요리교실은 여성·지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교육을 비롯해 요리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실생활에 필요한 밑반찬과 냉국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실버원예교실 참가자 모집



동제주노인복지센터(소장 김명혜)는 노인들의 역량강화와 치매예방을 위한 실버원예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원예교실을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학구열 성취와 자존감 향상 및 심리, 정서적 안정을 통한 치매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1층에서 열린다.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구좌읍 관내 지역아동센터 연합은 지난달 8일 해녀박물관 야외무대에서 I&We 콘서트를 개최했다.

구좌읍 관내 지역아동센터 연합(종달, 우리하도,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은 지난달 8일 해녀박물관 야외무대에서 아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I&We' 개

최했다. 이번 콘서트에는 해바라기 거점 지역아동센터 올키즈스트라 '유빌라테' 악기 연주팀과 구좌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

사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출신 고철호씨의 바순연주와 지역 학부모들의 축하공연도 열렸다. 이어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을 상영해 구좌주민들의 여름밤 무더위를 식히는 마을축제가 됐다.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박미란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참여아동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 주고, 무대경험을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최했다"며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에 고마움을 표하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함께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해외 방문단 베트남 방문

월드비전 제주지부(지부장 김관호)는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내 중고등학생 13명과 함께 해외사업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9일까지 월드비전 베트남 응고꾸엔 사업장을 방문한 학생들은 베트남 청소년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세계시민 의식과 나눔, 봉사, 배려정신을 배우고 돌아왔다.



전기사랑회 가파도서 재능기부 실천

1004지역사회 봉사단 '전기사랑회'는 지난달 8일 가파도에서 열린 이동복지관 '흔디모영'에 참가해 재능기부 실천에 앞장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전기사랑회는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파도 135개 모든 가구를 돌며 전기점검 및 보수작업을 진행했다.



(사)청년제주

제주시희망원 찾아 봉사활동

(사)청년제주는 지난달 10일 제주시희망원(원장 박정해)을 찾아 시설 이용인을 위한 선풍기 20대를 기증하고 봉사활동을 했다.

강창수 이사장을 비롯한 대학생 봉사자 15명은 제주시희망원의 환경게시판을 새롭게 단장해 시설 이용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인 제작 목주 '인기'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최영열) 이용인들이 만드는 목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직업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작업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회 진행하는 비즈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간보호센터 이용인들이 만든 목주가 큰 호응을 끌고 있는 것.

작업 가능한 6명의 이용인들은 제각각의 노하우를 갖고 작업을 한다. 이들이 제작한 목주는 제주도 각 지역 성당과 일배움터에서 운영하는 플로베 카페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탐라장복, 가족힐링캠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은실)은 지난달 9~10일 이틀에 걸쳐 '흔디들영·보명·느끼명 함께하는' 1박2일 가족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제주생태관광 직영숙소 이을락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

프는 세계자연유산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고, 카약체험 및 돌하르방 공원 견학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족 간의 화목과 돈독함을 가질 수 있었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효나눔 팔순잔치 열어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흥기)은 KB국민은행 서귀포지점(지점장 박태훈)의 후원을 받아 지난 7월말 동홍동 영구임대아파트 내 팔순을 맞이한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1회 효(孝)나눔 팔순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녀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식사를 제공했다.



혜정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희망을 빛다' 전시회 개최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장 이민숙)은 한라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도자기 공예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이 각종 공모전 등에 출전해 입선한 작품 등 10여 점과 박선희, 홍은실 도예가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비장애 형제 집단 상담 실시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봉금)는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형제가 있는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비장애 형제 집단 상담 '우리끼리 힐링 UP'을 진행했다.

장애형제의 이해를 돕고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자기성장을 돕기 위해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11명이 한 그룹을 형성, 4회기에 걸쳐 실시했다.



제주태고원 어르신 위한 요가교육 실시

제주태고원은 시설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요가 및 스포밴드 운동을 주 2회 실시한다. 전문강사의 지도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시설 내 어르신들의 관절구축 예방을 위해 주 1회 요가 및 스포밴드 운동을 병행 시행 중이다.



에코소랑 추석선물센터 판매

에코소랑(원장 박경숙)은 추석을 맞아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과실원(발효원액) 및 허브차를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한 물건의 수익은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과 건강한 삶을 위해 지원된다. 가격:2~5만원 (문의:723-2288)



함덕농협, 은빛마을 후원금 전달

함덕농협(조합장 고금석)은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센터장 한애정)에 현금 300만원을 후원했다. 이 금액은 센터에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자미성요양원, 방문프로그램 실시

내 친구가 사는 집 자미성요양원(원장 현갑열)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방문 프로그램 일환인 한지공예(압화 부채 만들기)를 진행했다. 매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담당 직원과 외부강사들이 방문해 진행한다.

칼럼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 참여율 높여야



한 영 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최근 민간 어린이집들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원아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어린이집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 간 원아모집 과열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로는 운영자가 자주 바뀌거나 문을 닫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난 심각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은 2013년 6월 말 현재 총 597개소이다. 2008년 476개소에 비하면 5년6개월 사이에 121개소 늘어났다.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일반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등 6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늘어난 어린이집은 민간(40개소)과 가정어린이집(77개소)이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증가수의 대부분

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증가와 함께 아동(0~5세) 정원 역시 계속 늘어나 2013년 6월 현재 3만 3048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현원은 정원의 77.5%인 2만 5597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공립 및 법인·단체 등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 민간개인, 가정,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마다 정원에 비해 2~3명 정도의 아동이 부족한 채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부족은 곧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아동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욱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주변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게 하고 있다. 우선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는 아동 양육수당의 지원되면서 가정양육을 하는 아동의 증가하고 있다. 셋째는 교육비 지원으로 인해 영유아들이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나은 유치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균형 있는 수급조정 방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이의 대안으로 어린이집 인가제한 문제이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린이집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어린이

집 난립을 방지하고 과도한 공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난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간 과당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다.

인가제한, 해결방법 아나

그러나 어린이집 포화상태를 오로지 인가제한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새로운 어린이집의 자유로운 진입 차단으로 기존 운영자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자유로운 경쟁구도에 의한 열악한 어린이집 퇴출 통로를 차단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경쟁체제가 사라지고 보호 장치가 마련돼 오히려 부실 운영을 양산할 수 있다. 국가에서 보육비 등을 지원받으며 운영되다보면 안일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에 있어서도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난의 문제는 인가제한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보다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학부모 직접 참여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보육정책의 중심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론

복지확충을 실현하는 길



문 익 순

(전) 제주4·3사업소장

복지란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적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보장이다. 2012. 4. 11 총선공약을 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2013년부터 5년간 75조 3000억 원을 투자하여 교육, 보육, 의료, 일자리 및 기타복지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실천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목신설이나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세수를 늘리고 다른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여 89조원을 마련한다는 것. 아무튼 복지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공약실천은 위정자와 행정가의 몫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약실천에 필요한 재원을 비과세감면축소, 지하경제양성화, 탈루세원추진, 조세피난처은닉자산 추적 등을 통해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여건 상 증세 없는 세수확보가 가능할까. 금년 상반기 국세징수가 경기침체로 결함되는데, 증세 없이 그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란 어려운 경제현실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세수부족은 명약관화하다.

복지재원 확보위한 증세 필요

그러면 복지공약을 철회하지 않는 한 증세(增稅)가 필요하다. 요즘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증세,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문제가 뜨겁다. 돌이켜 보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한 획기적인 복지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조세는 예로부터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납세의무로써 금전을 직접 부담하는 점에서 국민들은 예민하다. 특히 증세는 부담액의 대소를 떠나 국민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정부는 월 소득 3450만 원 이상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언론과 민심이 동요하자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정부 여당은 기준소득을 55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산층이란 소득수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중위소득의 50~150%라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연 3450만원 소득자 1인 증세액은 연 16만 원 정도라 한다. 물론 국민층에게는 부담이지만, 중산층의 조세저항 수준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야당과 사회일각에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선동한다. 폭탄이라는 용어의 남용은 아닌지. 그럼에도 이에 동조하는 것은 봉급생활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이다.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 등 부유층이 과연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서민이나 중산층은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5500만원이 적정한지 모르겠으나, 고소득 탈루세원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고 세율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증세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민감하다. 위정자도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담되는 사안이다. 어디 증세 없이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가 가능하겠는가. 경제를 모르는 사람도 복지혜택을 더 누리면 세금도 따라 오르리라는 것은 짐작한다. 80조원 상당의 새 복지 혜택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정부에 서비스는 요구하면서 부담을 앓겠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다만, 증세문제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정부와 국회가 신중히 검토하여, 소요재원과 적정한 부담수준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기고

섬마을에 피어나는 “재능기부봉사활동”



고 태 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누구나 철들고 나서부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에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의 없이는 사람은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고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에 따라 자기 자신, 가족, 이웃, 사회, 세계로 향한 그의 사랑의 크기가 결정된다. 사랑의 능력은 저절로 형성되

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얼마 전 재능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자원봉사자 40명과 함께 섬 속에 섬인 추자도에 의료서비스 및 주거환경의 열악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의료지원팀, 이·미용팀, 주거환경개선팀, 민요공연팀, 식사제공 등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팀은 추자면 대서리 경로당, 리사무소에 쉼터를 만들고 의료지원팀은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한의과 등 어르신들이 건강 체크와 상담, 이·미용팀은 이발, 주거환경팀은 독거노인집 청소 및 도배, 민요공연팀은 경로당에서 노래와 춤을 선사하였고, 점심식사는 시원한 콩국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어르신들에게 다시금 건강한 삶의 여유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부봉사자들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건강 활동의 시간이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기 자신과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이웃과 사회로 눈을 돌려, 보다 풍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세상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제주에는 1만1천여명이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제주 전역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앞으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려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프로보노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고, 많은 분야에서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과 배려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 및 확산을 위한 토론회

보편성 강조한 ‘유니버설디자인’ 제주도 서비스 전반 철학으로 삼아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 위원회와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달 2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 유니버설디자인은 관광객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촉진시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최령소장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와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 주최로 지난달 2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된 일본 국제교류사업 연수보고에 이어 최령소장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꿈꾸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기초강연을 했다.

‘유니버설디자인’(UD, Universal Design)이란 특수한 배려를 더하지 않고 남녀노소, 인종 및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 사용하기 쉽고 쾌적하고 알기 쉬운 제품·환경·정보를 디자인 하는 것을 말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건축가이자 공업 디자인인 론 메이스가 1985년 ‘다지이너스웨스트’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우리나라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선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대 들어서면서부터다.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칙은 ▲공평한 사용 ▲사용상의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오류에 대한 포용력 ▲적은 물리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등이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최소장은 “턱이 없는 문이나 경사각이 가파르지 않은 계단 등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듯 보편성에 입각한 디자인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는 가이드라인부터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최소장은 “이런 기준은 유니버설디자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해 줄 것이고, 평가치를 정보화하면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특별함을 가장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의 좌장인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일본이나 국내 조례에 비해 내용이 알찬 것 같다. 민간시설에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택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건축과 도시적 의미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은 기존의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고 격리하는 차원의 접근에서 탈피

또 이 교수는 “제주형+제주다운 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개발과 실현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조직 구축, 민·관·학이 함께하는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는 “제주자치도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 지난 2011년 한국관광공사의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현황’을 보면 제주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 13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영국과 미국의 경우 이동약자(장애인·노인 등)를 위한 관광시장 규모가 각각 3조5000억 원과 15조 원 규모로 보고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단 단장은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도로공사의 ‘졸음쉼터’를 서비스 디자인으로 개선한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며 “기존의 공급자 관점의 정책에서 사용자 관점의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단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도입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약자 뿐만 아니라 관광객 확충에 기여할 것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추진 중...평가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최소장은 “제주도는 한국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특별한 지리적 특성을 지녔고, 최근에는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한국 최고의 국제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제주지역의 유니버설디자인은 다른 지역처럼 ‘공공디자인 분야’에 국한시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공간과 제품, 서비스 전반을 다루는 철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등 실현 수준을 평가하

김진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과 기본적인 사항을 제주도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도민, 사업자,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해 도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자인 계획 수립 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한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술기관, 다른 지역 도시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학교나 사회교육에 있어서

해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회통합적 접근 방법으로서의 전환과 함께 인권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인간 개개인의 창조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으로 건축과 도시가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 중에서 가장 약조건을 기준으로 디자인이 이뤄져야 하며,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 제주 나눔 대축제 를 함께 꾸며갈 개인 · 단체 · 기관의 신청을 받습니다



「2013 제주 나눔 대축제」는 나눔과 기부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나눔과 기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그로인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0월 5일(토) ~ 6일(일)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신 청 서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Fax. 702-3383 / E-mail. jejubokji@empas.com)로 제출
- 신청기간 : 9월 6일(금)까지

■ 참가분야

부스운영 (부스크기 : 5m×5m, 몽골천막 1동)

종 류	수 량	내 용
수놓음마당	10동	축제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는 재능나눔 마당 (문화 · 예술 · 기능인의 재능시연, 소규모전시, 현장지도 등)
김만덕마당	15동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마을과 기업에서의 나눔실천을 알아보는 나눔실천마당 (사회복지시설 · 단체 · 기관의 서비스 내용 홍보, 마을 · 기업사회공헌사례 소개 등)
관당마당	10동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이웃의 입장을 체험 해보는 체험마당 (장애인 · 노인 · 임산부체험, 소방안전체험, 기부식품 포장체험, 다문화체험 등)

※ 부스운영기관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최종선정된 부스운영기관에는 300,000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 10월 5일 오전 11시 ~ 10월 6일 오후 6시까지 부스를 운영하여야 하며, 주관처의 부스운영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원봉사와 기부

종 류	내 용
자원봉사 활동	■ SNS중계본부 운영팀 : 행사 전반의 내용들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매체를 이용해 알리는 팀 ■ 영상 촬영팀 :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서 축제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록하는 팀 ■ 행사진행 지원팀 : 행사장 곳곳에서 행사진행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팀 ■ 기타 자원봉사 : 기타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 (행사홍보 지원, 각종 아이디어 제안 등)
기부 활동	■ 기부식품 포장체험 : 현장에서 직접 포장하고 전달될 기부식품 · 생필품 등을 기부 받습니다. ■ 물물교환 장터 : 필요한 곳에서 가치있게 쓰일 수 있는 도서, 의류, 장난감 등을 기부받습니다. ■ 기타 기부 : 행사가 의미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를 해주실 분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활동 인증서(VMS)가 발급되며, 행사기간 중 식비가 지원됩니다.

■ 참가문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Homepage : www.jejubokji.net TEL : 702-3783~4